

NEWS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향후 북한의 의료지원을 위해 북한 방문을 하다.

회장 최영식 신부는 부회장 박장상 교수(한국가톨릭의사협회 회장), 사무총장 정수교 교수(CMC 기획조정실장)와 함께 2008년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사단법인 나눔 인터네셔널(대표 이운상)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방문 목적은 향후 본 협회가 추진해갈 북한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의 의료시설 및 진료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최영식 신부를 비롯한 방문단은 평양에 있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강남군인민병원, 평양의료협력센터 등의 의료시설을 방문하였다.



정기총회 개최

2008년 협회 정기총회가 2008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3개 직능단체와 회원병원 대표 등 28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의 심의와 승인, 협회의 법인화 추진 과정 보고, 북한의료선교사업에 대한 방북 보고 등이 있었으며, 가톨릭병원협회 총회가 연석으로 이어졌다.



해외 및 북한 의료선교사업 2008년 제3차 및 4차 회의

2008년 4월 8일과 5월 6일 오후 6시에 해외 및 북한의료선교사업을 위한 제3차 및 제4차 회의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6월 15일부터 23일까지(7박 9일) 몽골 해외의료선교를 앞두고 몽골 '다르향'의 답사보고와 그동안 지원한 의사, 약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해외의료선교단원 선정(총 31명) 및 파트별 준비사항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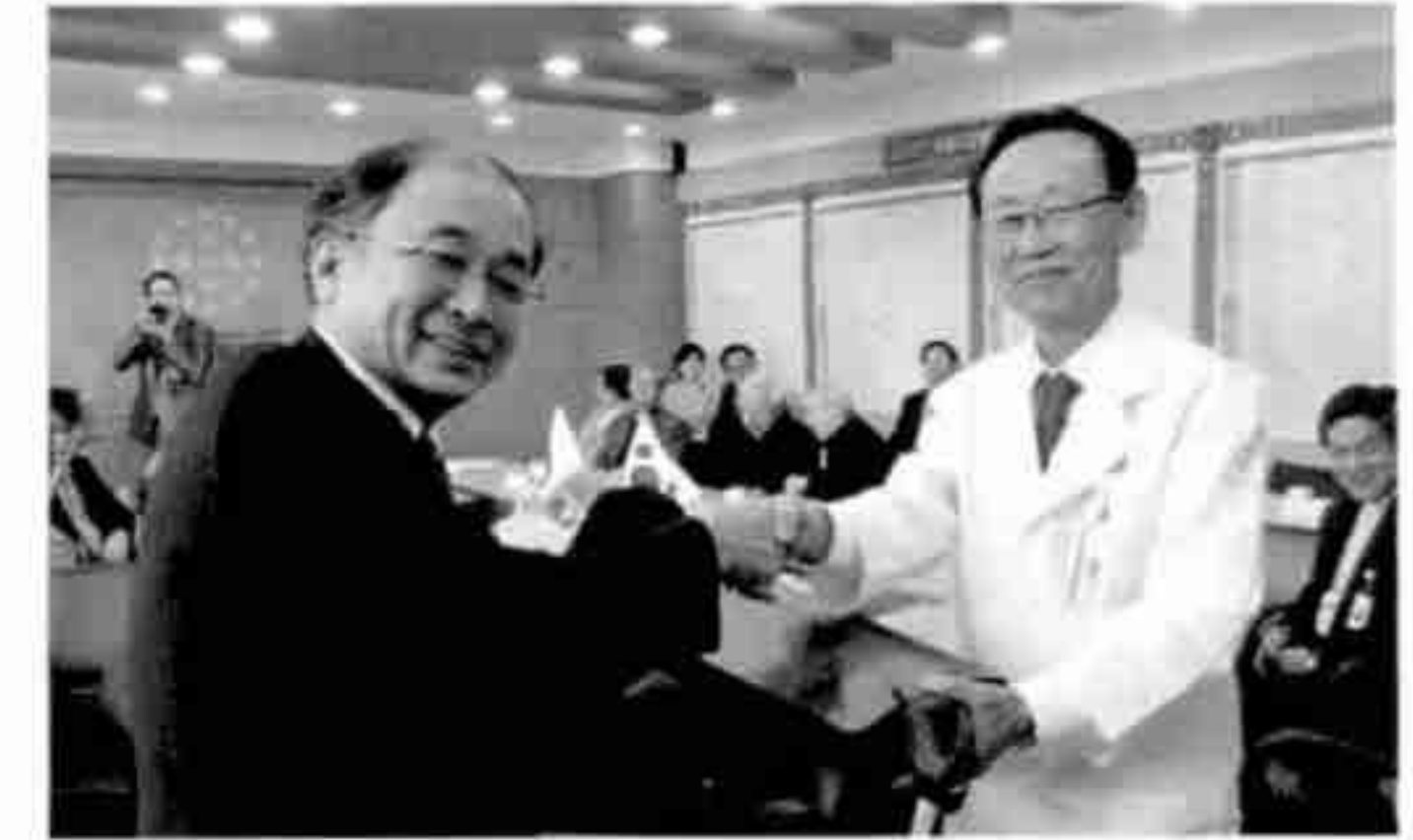
제21차 한·일 가톨릭의료기술교류위원회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일본 '성마리아그룹'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일 가톨릭의료기술교류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에서 25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열렸다. 한국측은 최영식 협회장을 비롯하여 채영희 부회장 신부 등 12명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일본측은 성마리아

NEWS

그룹의 이데 요시오 이사장 외 관계 임원 10명이 참석해 양측의 현안을 다루며 가톨릭 이념 실천을 기반으로 한 교육, 원내선교활동, 직원파견과 공동연구, 해외의료선교 공동참여 등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특히 일본측에서는 금년 11월에 있을 일본 순교자 188인 시복식에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제단을 초청하고,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의료자원봉사자로 요청하였다. 회의 2일째에는 부산성모병원을 견학하였고,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한국의 4개 간호대학(과)장(서울, 대구, 부산, 목포)들과 모임을 갖고 한·일 가톨릭 간호대학 교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차기 한·일 가톨릭의료기술교류위원회는 2009년 가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5차 가정간호분과위원회 개최

2008년 5월 13일 제5차 가정간호분과위원회가 대구가톨릭의과대학 마리아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회원병원 중 가정간호사업소가 있는 16개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에서 총 26명이 참석하였는데 김익중(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팀)부장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특강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가정간호센터부소장 정현숙 수녀의 “방문간호신청 사례발표”,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저소득층 가정(방문)간호 대상자에게 상처제품지원 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분임토의 후 폐회하였다. 다음회의는 10월 광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새 임원진 구성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2008년 2월 23일부터 24일, 제3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새 임원진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0명, 감사 2명, 간사 1명의 총 16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 회 장 김남초 세실리아(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제1부회장 채계순 데레사(성모병원 간호국장)
- 제2부회장 김복자 바울라(울산의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
- 총무 이사 유양숙 보나(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회계 이사 김혜경 베로니카(강남성모병원 7A unit UM)

